

호주 재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사례 연구 - 멜버른과 시드니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Housing Maintenance and Alterations by the Elderly Residing Melbourne and Sydney in Australia

이영심*
Lee Young Shim

이상해**
Lee Sang Hae

Abstract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family in societ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want to live independently of their children. Australia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s initiated an extensive welfare program for its senior citizens. These services include maintenance of, and alterations to their own homes to make living conditions safer and more manageable. This case study was aimed at finding ways of adapting the services provided in Australia, to meet the needs of elderly Koreans who are in similar situations. It evaluated houses which had been renovated and altered for the normal as well as the disabled elderly in both Melbourne and Sydney. Results of research were as following : 1) Most elderly usually wished to remain as long as possible in their own home and it made them very stable in psychologically. 2) Housing maintenance and alterations were provided as one of social care services for elderly with low expense and loan from government. 3) Many elderly were also getting various kinds of social services, for example, meals on wheels, transportation and cleaning service with housing alterations and these ones let their quality of life more improved. 4) Occupational therapist and Architect were always involved in the process of housing alterations for disabled elderly. 5) The alterations which related to bathroom, toilet and steps were very popular and those were considered essential design guide applications for planning of housing for elderly in the future.

Keywords : 재택노인, 주택수리 및 개조, 지역사회보호, 노인주택계획지침, Elderly who live at their homes, Housing maintenance and alterations, Home and community care, Design guide applications for elderly housing

1. 서 론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로 주거 환경의 질은 생활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쇠퇴하고 주택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주거에 대한 의존 정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0). 최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전체 노인중 노인단독세대는 84년의 22.6%에서 98년에는 46.8%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1). 이는

핵가족화의 보편화와 함께 노인들의 의식 또한 변화하여 자식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점차로 일상생활능력(ADL; Activity of Daily Living)이 저하하며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에서의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86%가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으며 72% 이상의 노인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식사, 외출, 용변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황영이, 1999). 또한, 재택 노인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만족 정도가 대체로 낮으며 주거규모가 좁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안전사고의 확률이 높아 노인들의 주택 공간에 대한 개조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태일, 1998).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이제까지 거주했던 주택에서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시설로 이동하는 것도

*정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Post-doc.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본 논문은 2000년도 BK21사업 핵심분야 사업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본문의 모든 사진들은 연구자가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것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친숙한 주거환경을 떠남으로서 고립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주변환경에서 계속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해 주고 재택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등의 조건 정비뿐 아니라 주택을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으로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최재순 외, 2001).

최근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의 노인정책은 과거의 수용 보호적인 차원의 시설부양정책에서 지역사회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기존의 시설 내 거주정책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이 자신이 거주했던 주거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주택개조를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 필요비용을 제공하고 있다(최정신, 1997; 최재순 외, 2001). 일본 역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해결 방안의 초점을 주택개조에 맞추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다(최재순 외, 2001).

노인단독가구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역시 주택 내에서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재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의 사례 고찰은 우리나라 재택 노인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해 온 호주의 노인주택 및 개조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재택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호주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노인주택 수리 및 개조 정책을 고찰하였으며 연구 대상 지역인 멜버른과 시드니의 노인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수리 및 개조 항목을 분석하고 노인주택의 주거환경계획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II. 호주 노인주택의 수리 및 개조 정책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의 11%에서 1996년에는 12%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16% 그리고 2031년에는 약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Australian Bureau Statistics, 1996). 호주는 1908년 노령연금제의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실

시하여 왔으며 지역사회보호정책(HACC; Home And Community Care)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목적은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보호정책의 프로그램은 가사원조 서비스, 식품 및 음식배달 서비스, 개인보호 서비스,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이다.

최근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은 다른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설보호정책에서 지역사회보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오래 살아왔던 주거 및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설보호정책에 비하여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정책 전환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호주는 각 주(state)마다 독립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주택수리 및 개조에 관한 서비스 역시 주마다의 특성이 있다.

본 연구 대상 지역인 빅토리아(Victoria)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 체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빅토리아(Victoria)주의 주택 수리 및 개조 서비스

빅토리아주는 호주 전체에서 가장 체계적인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 서비스부문(Dept. of Human Services)의 주택사무국(OoH; Office of Housing) 지원 하에 주택개조 서비스(home renovation services)와 장애인 서비스(disability services)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주택에 대한 주택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는 주는 빅토리아주가 유일하며 그 실행기관인 아키센터는 멜버른(Melbourne)에 위치하고 있다. 1년에 대략 4,000명 정도가 무료 주택검사 서비스를 받는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주택사무국에 주택검사를 신청하면 이는 곧 아키센터에 의뢰된다. 아키센터의 건축가는 의뢰된 특정 항목 뿐 아니라 주택 내외의 계단높이, 출입문의 잠금장치, 연기감지장치, 두꺼비집, 마루의 카펫 상태 등 안전과 관계된 모든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건축가는 개조가 요구되는 항목의 우선순위와 그 예상 가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condition report)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데 노인들이 주택검사 서비스를 받은 후에 주택을 개조 수리할 것인 지의 여부와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맡겨 개조 수리할 것인지는 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

빅토리아주의 노인들이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를 받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먼저 건강한 노인인 경우에

는 주 정부에 신청하여 바로 아키센터의 주택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 노인의 경우는 아키센터의 서비스에 앞서 작업치료사(O.T; Occupational Therapist)가 방문하여 거주 노인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시설을 계획한다. 그 후 아키센터의 건축가와 해당주택에서 함께 만나 작업치료사의 제안 사항들을 건축계획적인 면에서 논의한 후 실행하게 된다.

빅토리아주에서 행하는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개조 항목으로 계단 없는 샤워시설 만들기, 싱크대의 높이 변경하기, 경사로 설치하기, 출입문 넓히기 등이 있으며 개인의 안전을 위한 항목에는 안전한 보도(paths)만들기와 마루 깔기, 울타리와 문 만들기, 연기탐지기 설치하기, 안전등 달기 등이 포함된다. 내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항목으로는 벽과 마루에 타일 깔기, 젖은 부분에 마루 깔기, 지붕 교체, 페인트 칠하기, 히터 교체하기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유지관리 항목에는 전기배선 교체하기, 배관 교체하기, 수도파이프 교체하기 등이 포함된다.

주택 개조 서비스는 1년에 1번 신청이 가능하나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다.

2.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주택 수리 및 개조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집 주인의 승인 하에 주택 수리 및 개조가 가능하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로 행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 약 1,200개의 비영리 단체가 각기 다양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0개의 단체가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년에 대략 3,000명 정도가 주택 수리 및 개조 서비스를 받는데 서비스를 받는 과정은 빅토리아 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의뢰인이 장애인인 경우는 작업치료사와 시공자가 해당 주택에서 함께 만나 주택의 수리 및 개조에 대하여 논의하며 의뢰인이 비장애인인 경우는 작업치료사의 관여 과정이 생략된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행하는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는 제 1 수준(level 1), 제 2 수준, 제 3 수준으로 분류된다. 제 1수준은 여러 종류의 손잡이 대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예상비용이 5,000불 이하이다. 제 2수준은 욕실 개조나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예상비용은 5,000불-20,000불이며 이 경우에는 전체 경비에서 20%를 할인해 준다. 제 3 수준은 욕실과 부엌에 관련된 작업 그리고 휠체어 통과를 위해 출입문을 넓히는 등의

표 1.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노인주택 수리 및 개조 서비스 체계

비교 항목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서비스 대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분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통합
자격 조건	주택 소유자	임차인의 경우도 가능
무료주택검사	있음	없음
작업치료사	참여함	참여함
신청횟수	1회/1년	여러 번 가능/1년
운영주체	주택사무국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실행기관	주택사무국	비영리서비스단체
운영자금	주택사무국자금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자금

작업으로 예상비용은 20,000불 이상이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할부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 받기도 한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서비스의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1년에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의 기준으로 시설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욕실이나 계단이 두 개인 경우에는 경비가 덜 드는 한 쪽을 택하여 실시한다. 이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나치게 많은 설비가 시설의 느낌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1년 8월 1일-9월 30일 사이에 호주의 멜버른(Melbourne)과 시드니(Sydney)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멜버른이 속해있는 빅토리아주와 시드니가 속해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정부기관 관계자를 만나 관련자료를 입수, 분석하는 한편 수리 및 개조된 노인 주택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통한 면접과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멜버른에서는 작업치료사와 아키센터의 담당자, 건축가를 면접하였으며 시드니에서는 서비스의 수행기관인 웨슬리 미션(Wesley mission)과 랜코브 커뮤니티 센터(Lane Cove community center) 2곳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을 면접하였다. 멜버른의 사례는 10 케이스였으며, 시드니의 사례는 22 케이스로 총 32 케이스를 분석하였다.

IV. 사례조사 결과 분석

빅토리아주는 주택사무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관장하

고 있으므로 주택사무국의 담당자를 통하여 사례를 소개받았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비영리 서비스 단체인 웨슬리 미션과 랜 코브 커뮤니티 센터를 통하여 사례를 소개받았다.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운영체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멜버른과 시드니의 사례를 함께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조사대상노인의 평균연령은 빅토리아주의 경우 72세였으며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4세였다. 전체 노인 중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가 각각 70%, 32%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의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은 각각 30%, 27%였으며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매우 건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주택형태는 1층 단독주택의 2침실형이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각각 29년, 26년이었다. 특정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이유의 우선순위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쇼핑센터의 가까움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의 순이었다. 노인들은 모두 노령연금(age pension)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모두 이사 계획이 없었다.

노인들은 간호가 필요한 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거주해온 지역사회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면에서 주택 개조는 노인에게 편리한 생활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 노인들은 휠체어나 샤워의자 등을 병원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 영구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의 일부는 간호사에 의한 목욕이나 샤워 서비스, 음식배달 서비스 그리고 집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는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노인들은 가족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가족들이 주변에 살기를 원하였다.

2. 노인주택 수리 및 개조의 내용

1) 욕실 시설 개조

멜버른과 시드니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 주택에서 수리 및 개조가 가장 많이 행해진 공간은 욕실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70, 80대 노인들의 주택 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욕실이며 노인주택의 개조 역시 욕실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태일, 1998).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지체장애인 또한 욕실 사용에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욕실의 개조율이 가장 높았고 개

표 2.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N=10) (N=22)

항목		지역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평균연령		72세	74세
가족 형태	독거	7(70%)	7(32%)
	부부	3(30%)	15(68%)
장애 여부	유	3(30%)	6(27%)
	무	7(70%)	16(73%)
주택 형태	2 침실형	8(80%)	16(73%)
	3 침실형	2(20%)	6(27%)
평균 거주 년수		29년	26년
거주 이유 우선 순위	이웃과의 좋은 관계	5(50%)	9(41%)
	쇼핑센터의 가까움	3(30%)	6(27%)
	대중교통의 편리함	2(20%)	5(23%)
	그 외		2(9%)
주 소득원		노령연금	노령연금
이주계획		없음	없음

조하기를 희망하는 공간 역시 욕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찬옥, 2000, 최재순 외, 2001). 일본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볼 수 있는데 노인의 신체적 상태별 개조방향에 대한 기준을 위한 연구 결과에서 욕실, 화장실, 복도의 순으로 개조율이 높게 나타나 노인들의 보행 행동과 개조 행위와의 높은 상관 관계를 볼 수 있었다(최재순 외, 2001; 츠츠이 타카코, 1997).

욕실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개조 내용은 욕조 옆 벽에 손잡이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빅토리아주의 경우 10명중 8명,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22명중 18명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로 일상생활능력정도가 떨어져 욕조의 출입이 불편하며 벽이나 욕조를 짚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손잡이 대는 욕조 옆벽에 뿐 아니라 샤워실(booth)안에도 설치하였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손잡이 대를 잡고 이동용 의자에 앉아 샤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욕조나 샤워실에 고정식 샤워시설이 없어 항상 샤워기를 움직여 사용해야 하는 노인들은 벽에 고정식의 샤워기를 설치하는 서비스도 받고 있었다.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일상적인 거동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는 욕조나 샤워실을 없애고 바닥에서 직접 연결되는 샤워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커튼을 달 수 있는 샤워레일과 고정식 샤워시설 그리고 양 옆의 손잡이 대를 만드는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많은 노인들이 욕실이 안전사고의 위험 정도가 높은 장소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개조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도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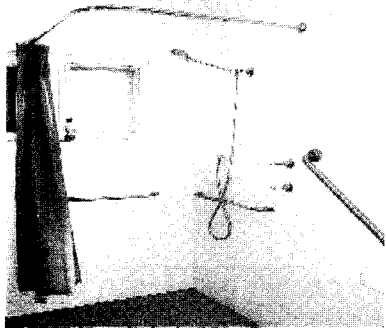


그림 1. 개조된 샤워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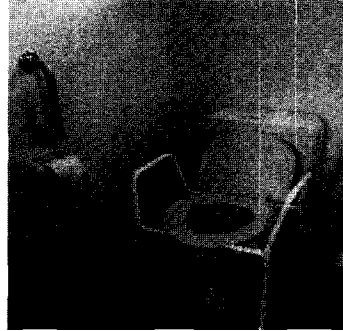


그림 3. 보조기구를 사용한 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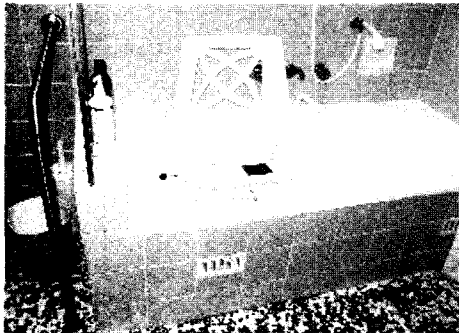


그림 2. 이동용 목욕의자와 샤워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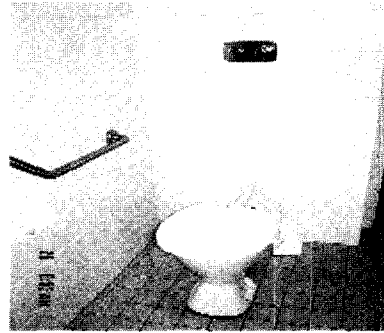


그림 4. 물탱크를 벽 뒤로 옮긴 변기

이 외의 욕실에 대한 서비스는 미끄러움 방지재로 바닥 마감을 하거나 세면대와 욕조, 거울과 유리창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고 간혹 욕조 옆벽의 타일을 유지관리하기 쉬운 재질의 패널로 바꾸는 등의 서비스를 행하였다.

2) 화장실 시설 개조

목욕이나 샤워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하도록 해 주는 손잡이 대는 화장실에도 역시 적용되었다. 변기 옆에 설치되는 손잡이 대는 욕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업치료사의 판단에 따라 길이와 모양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였다. 변기에는 앉는 부분에 보조시설을 부착하여 보통의 것보다 높여서 노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기 뒤에 있는 물탱크를 벽 바깥으로 옮기는 작업도 행하였다. 이는 장애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서 휠체어에서 변기로 몸을 이동할 때 변기 앞에서 방향을 바꿀 필요 없이 같은 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변기의 물탱크가 보통의 경우처럼 변기 뒤에 부착되어 있다면 앉았기에 불편하므로 물탱크를 밖으로 옮겨주는 것이다.

화장실과 욕실 문은 미닫이 식의 슬라이딩 도어를 계

획하여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잡이는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열 수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였다. 수도꼭지는 손에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손 힘이 약한 노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교체하였으며 조명시설은 환기와 보온을 겸한 새로운 기능으로 교체하였다. 화장실이나 욕실 내에 있는 전기 스위치는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 옮겨 설치하였고 그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3) 계단 제거 및 경사로 설치

노인들의 대다수가 안전을 위하여 주택 내외에 계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대문부터 현관까지의 경사진 부분에 있었던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거나 혹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실에서 앞마당으로 나오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예들을 볼 수 있었다. 주택 내의 공간들 사이에 턱이 많아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부분별 경사로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경사로를 설치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VAEP(Victo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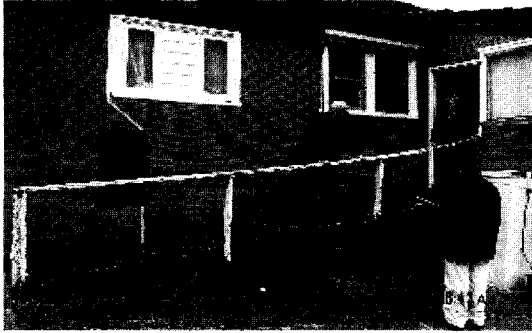


그림 5. 아키센터의 건축가와 의뢰인이 경사로 교체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



그림 8. 현관 앞 손잡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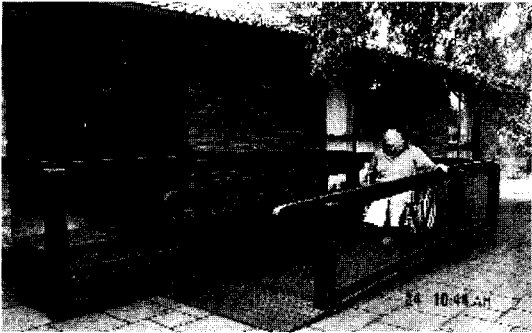


그림 6. 거실에서 앞 마당으로 연결되는 경사로



그림 9. 뒷문 손잡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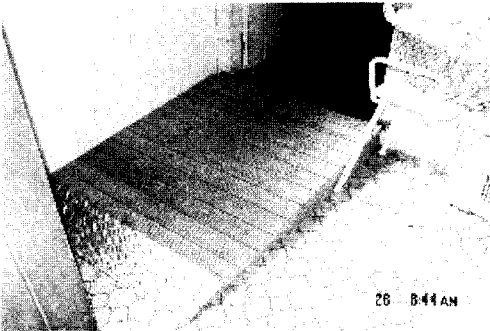


그림 7. 주택 내부의 부분 경사로

Aids and Equipment Program)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만족 정도가 매우 높았다. VAEP 지원금의 최소금액인 4,000불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총 금액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4) 기타 시설 개조

호주의 노인주택 수리 및 개조서비스는 노인들의 생

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뿐 아니라 주택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출입 시의 안전을 위하여 현관 입구 벽과 뒷 출입문의 벽에 손잡이 대를 설치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고 눕는 동작에 불편함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침대 옆에 손잡이 대를 설치하며 청력이 약한 노인을 위해 전화벨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이 모두 이러한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 외에 지붕과 흠통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서비스도 행하고 있는데 지붕의 경우 시멘트 타일을 주석으로 바꾸거나 화학적인 코팅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의 작업이 많았으며 흠통의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 집의 울타리와 차고를 새로 만들기, 주택의 내, 외부 페인트칠하기, 오래된 전선을 새로 갈기, 수도 파이프를 교체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행하고 있었다.

이상의 노인주택수리 및 개조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 3>에 정리하였다.

3. 노인주택의 수리 및 개조 비용

표 3. 주택수리 및 개조의 세부항목별 빈도

주택수리 및 개조 항목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손잡이대설치	욕실과 화장실	8	18
	현관과 뒷문입구	5	7
고정식 샤워시설 설치		2	5
욕조 없애고 샤워시설로 개조		2	4
변기의 높이를 변경하거나 변기 자체를 개조		2	3
미끄럼 방지 바닥재 마감	욕실, 화장실	2	4
	부엌	1	2
욕실설비(세면대, 욕조, 거울 등) 교체		3	9
전기 관련 (전선, 스위치 교체)		3	3
경사로 설치		3	4
지붕 교체		2	4
흡통 교체		2	3
울타리 교체		2	
차고 개조		1	2
주택내외의 페인트 칠		2	4
수도 파이프 교체		2	2

호주의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행해지므로 노인들은 저렴한 경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노인들은 복지서비스 부문의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항목에 따라 많은 부분이 할인되는 VAEP자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역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할부 상환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엔 무료로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노인주택개조 담당자들은 노인들이 빚을 지기를 원하지 않아 대출금으로 주택 개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면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문제 때문에 불편한 채로 견디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대출금으로 주택을 수리, 개조하고 일주일 노령 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금으로 지불하는 노인들은 그에 대한 만족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주변에 추천하기를 원하였다.

노인들은 주택수리 및 개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정부에게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금을 제공

하고 각 주의 자율적인 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주택수리 및 개조를 원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노인들이 주택을 개조하고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어 비용 문제가 노인주택개조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권오정, 1997). 우리나라는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0년부터는 노인과 장애인의 주택 개조 시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성진, 1998, 최재순 외, 2001).

4. 노인주택의 주거환경계획 요구

멜버른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수리 및 개조를 행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노인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면접,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규모 면에서 적절한 크기이어야 하는데 침실 하나와 거실, 부엌, 욕실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노인들에게 주택의 유지관리가 매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택은 단열이 잘 되어 여름과 겨울에 모두 쾌적해야 하며 정원은 필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것을 원하였다. 거의 모든 노인들이 주택 내 외에 계단이 없어야 함을 언급하여 계단은 장애 노인을 포함한 모든 노인들에게 생활에 큰 불편요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내에서는 특히 욕실과 화장실 계획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안전을 위해서 욕조 없이 샤워 시설만 있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하였으며 샤워시설과 변기 옆에는 반드시 손잡이 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욕실에는 턱이 없어야 하며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마감도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택 내 안전사고의 주원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로 보고된 연구 결과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김태일, 1998).

욕실 문은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넓어야 하며 출입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할 것과 문손잡이 역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엌 싱크대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법을 위한 안전문과 비상벨 등도 노인 주택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택의 위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

표 4. 노인들이 요구하는 노인주택계획 요소

요구항목	지역		
	빅토리아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주택규모의 적절성	8	15	
단열성	3	9	
정원	5	7	
주택내외에 계단이 없을 것	9	18	
욕실과 화장실	욕조없는 샤워시설	8	14
	손잡이대 설치	7	13
	바닥에 턱이 없을 것	8	15
	바닥 미끄럼 방지재	4	8
	넓은 출입문	6	13
	슬라이딩 출입문	5	11
잡기 쉬운 문 손잡이	4	7	
낮은 부엌 싱크대	4	6	
방법을 위한 안전문	8	14	
비상벨	7	13	
주택의 위치	편리한 대중교통	6	9
	가까운 쇼핑센터	6	12
	노인들과 이웃할 것	5	9

운 곳이어야 하며 쇼핑센터에 가까워야 하고 젊은 사람 뿐 아니라 노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 환경을 요구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핵가족화와 노인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재택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호주의 재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의 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멜버른과 시드니에 위치한 노인 주택들의 주택수리 및 개조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호주 노인들은 호스텔(hostel)이나 너싱 홈(nursing home) 등의 시설로 옮기기 전까지는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지역사회에 머무는 것을 선호 하였으며 주택 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생활의 편리함 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장애 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도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노인의 재교육과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북돋울 수 있는 주거 측면에서의 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등의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가 일반 재택 노인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독립 생활을 격려하는 제반 서비스에 관한 활발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택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호주의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저렴한 경비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자금 대출 서비스나 무료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대출로 인하여 빚을 지는 것을 원치 않아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채로 견디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있어 주택수리 및 개조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에 대하여 인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서비스가 노인복지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주택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 내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 보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셋째, 주택 수리 및 개조 서비스를 받은 호주 노인들의 일부는 간호사에 의한 목욕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교통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장애 노인은 휠체어나 샤워의자 등을 병원이나 기타 관련기관에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재택 노인을 위한 지원은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와 함께 일상 생활을 보조해 주는 주거 관련 서비스가 함께 병행하여 제공될 때 노인의 생활을 질적으로 더욱 향상시켜 줄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점차로 감소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들에게 각종 생활보조기구나 생활 용품 등의 대여 서비스는 꼭 필요하며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호주의 주택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거주 노인이 장애인인 경우 반드시 작업치료사가 참여하고 있었

다. 작업치료사는 간단한 손잡이 대부터 휠체어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의 설비를 추천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의 개조가 비전문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리 및 개조 항목을 선택하는 지침이 되며 동시에 시공업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시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주택개조와 관련한 작업치료사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개조사례의 분석 결과와 노인들이 제안한 노인주택 계획요소는 앞으로 노인주택 계획 시 고려할 만한 요소로 사료된다. 사례 분석 결과, 욕실과 화장실의 설비와 계단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의 개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유사하여 노인주택 계획 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계획 요소로 사료되었다. 근본적으로는 신축 시부터 전 연령 대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다양한 장애 상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주택에 적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노인에게 꼭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비 장애 노인이 사고로 인하여 장애 노인이 될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앞으로 주택계획 시 건축법규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적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태일(1998), 주택내에서의 고령자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 pp. 3-12
2. 김태일(1998), 고령자 주택의 설계지침개발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2), pp. 23-34
3. 권오정(1997),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7(1), pp. 1-18
4. 오찬옥(2000), 지체 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소규모 아파트 공간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특성. 한국주거학회지, 11(3), pp. 99-107
5. 정성진(1998),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주택개조-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다시 보기.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장애인 복지시설축진시민모임. pp. 203-227
6. 최정신, 이언폴슨(1997),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의 그룹홈, 한국주거학회지, 8(3), pp. 67-78
7. 최재순, 권오정, 이의정(2001), 여성지체장애인 가정의 주택개조 실태 및 거주자의 물리적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pp. 1-14
8. 최재순, 이의정(2001), 노인과 장애인의 주택신축 및 개조 사례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0), pp. 39-53
9. 황영이(1999), 노인을 위한 일본 주거환경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통계청(2000, 7),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
11. 츠즈이 타카코(1997), Research on Maintaining of Residential of Elderly at Homes-Relationship between House Renovations and the Condition of Elderly, Summary of Technical Papers of Annual Meeti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pp. 343-344
12. Ageing and Disability Department(2000), April 2000 Final Model for high level home modification scheme prepared by HACC and Ageing programs unit
13. Australian Bureau Statistics(1996), Projections of the population of Australia, States and Territories (ABS Catalogue no 3222.0). ABS. Canberra
14. Home and community care, Ageing and disability Department(1998), Home and Community Care (HACC) program, guidelines for home modification and maintenance services(lower level scheme)
15. Aged care Branch, Aged Community & Mental Health Division(1998), Victorian Home & Community Care (HACC) Program Manual
16. Ageing & Disability Department, School of Occupation & Leisure Science, University of Sydney(2000). Report on the workshop and planning day held on 15th of December 2000 for the Home Modification Regional & Statewide fund holders